

한국어 종결어미 ‘-지’와 중국어 어말 조사 ‘吧’의 발화수반력 조정 기능 대조 연구

고영* · 수시아**

— 목 차 —

1. 서론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1) 한국어 ‘-지’에 관한 선행 연구
 - 2) 중국어 ‘吧’에 관한 선행 연구
 - 3) ‘-지’와 ‘吧’의 대조 연구 현황 및 한계
3. 한국어 ‘-지’의 발화수반력 조정 기능
 - 1) 완화 양상으로서의 ‘-지’
 - 2) 강화 관련 양상으로서의 ‘-지’
4. 중국어 ‘吧’의 발화수반력 조정 기능
 - 1) 완화 양상으로서의 ‘吧’
 - 2) ‘好吧’/‘是吧’구문에 나타나는 태도 확정과
담화 종결 관련 양상
5. ‘-지’와 ‘吧’의 기능 대조
 - 1) 발화수반력 완화 양상의 대조
 - 2) 강화 관련 및 주변적 조정 양상의 대조
 - 3) 문형별 발화수반력 구현 양상의 대조
6.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종결어미 ‘-지’와 중국어 어말 조사 ‘吧’를 단순한 양태 표지나 완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생(제1저자)

** 광서외국어대학교 국제교육학과 강사(교신저자)

화 표지로 보아 온 기존 논의를 넘어, 두 표현이 담화에서 발화수반력 조절에 관여하는 화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지’와 ‘ㄹ’을 각 언어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서술하거나 기능 대응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ㄹ’의 기능을 주로 완화에 한정하여 이해해 온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화행이론 관련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참조하되, ‘발화수반력 조절’의 관점에서 특히 확인 요청, 제안·권유 등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지’와 ‘ㄹ’가 발화의 직접성, 단정성, 요구성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BCC 구어 말뭉치 자료와 선행 연구의 예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두 표현이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어떠한 조정 양상을 보이며, 그 실현 방식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BCC 구어 말뭉치 자료와 선행 연구 예문을 바탕으로, ‘-지’와 ‘ㄹ’가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보이는 발화수반력 조절 양상을 완화 중심으로, 일부 강화 관련 조정 양상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표현은 추측·확인, 제안·권유 등의 화행에서 발화의 단정성과 지시성을 약화시키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그 조정이 실현되는 방식과 상호작용적 효과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지’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유 지식이나 당위성에 근거하여 발화를 인식적 함의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완화는 공유 전체에 기반하여 실현된다. 반면 ‘ㄹ’은 화자의 확신 유보와 관계적 협상을 통해 발화의 책임과 결정권을 유동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완화는 책임·결정권 협상에 기반하여 나타난다. 또한 ‘-지’의 경우에는 공유 인식의 재확인과 강조를 통해 발화의 당연성과 청자의 동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ㄹ’의 일부 용법, 특히 ‘好吧’, ‘是吧’와 같은 구문에서는 화자의 태도 표명이나 담화의 종결과 관련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형적인 발화수반력 강화라기보다 발화수반력 조절과 관련된 주변적 조정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조적 양상은 주요 문형과 상호작용 맥락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된다.

이와 같은 분석·대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와 ‘ㄹ’가 단순한 완곡 표지에 그치지 않고,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발화의 직접성, 단정성, 요구성에 조정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완화 중심 논의를 보완하면서, ‘-지’와 ‘ㄹ’의 기능적 양상을 발화수반력 조절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즉 한국어 ‘-지’는 주로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 인식이나 당위성을 바탕으로 발화의 직접성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국어 ‘ㄹ’은 화자의 확신 유보, 책임 분산, 상대와의 협상 가능성 조정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두 언어의 화용 교육에서 각 표현을 단순한 의미 대응 항

목이 아니라,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발화의 성격과 응답 관계를 조절하는 표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화행이론, 발화수반력 조정, 종결어미 '-지', 어말 조사 '吧', 화용적 완화와 강화 관련 양상, 한·중 대조 분석

1. 서론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의 습득과 의사소통에서 화자의 태도나 인식을 표현하는 양태(樣態, modality)¹⁾기능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양태 기능은 단지 화자의 내적 태도 표명에 그치지 않고, 상호작용 맥락에서 발화의 성격과 사회적 효력을 조정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특히 발화 행위의 사회적 효력을 조정하는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국어의 종결어미와 중국어의 어말 조사는 각기 문법 체계 내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발화수반력은 문장의 형식적 의미를 넘어 화자의 발화 의도와 화행의 성격과 관련되는 층위로 이해할 수 있다(Margolis 1973)²⁾. 또한 최근 연구는 종결 표현이 정중성이나 예절 표시를 넘어 사회적·상호작용적 의미를 부호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Portner, Pak & Zanuttini 2022)³⁾.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참조하되, '발화수반력 조정'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양태'는 남기심·고영근·유현경(2019)의 양태 범주 중에서 화자의 평가적 태도와 관련된 양상을 가리킨다. 인식적·증거적 양태나 의무·허가 등의 의미를 직접 표시하는 용법은 포함하지 않으며,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평가적 태도와 그 강도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한정한다. 즉, 본고의 '양태'는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해 갖는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표현 효과를 가리키며,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종결 표현이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보이는 조정 양상과 맞물리는 부분에 주목한다.

2) Margolis, Joseph, 『Meaning, Speakers' Intentions, and Speech Acts』, 『The Review of Metaphysics』 제26권 제4호, 1973.

3) Portner, Paul·Pak, Miok·Zanuttini, Raffaella, 『Dimensions of honorific meaning in Korean speech style particles』,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제7권 제1

을 기존의 완결된 이론으로 전제하기보다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종결 표현이 발화의 직접성·단정성·요구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점이자 작업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발화수반력 조정’은 종결 표현이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나타내는 조정 효과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말하는 ‘조정’이란 발화의 직접성, 단정성, 요구성뿐 아니라 화자의 책임 부담과 청자의 응답 요구 방식이 상호작용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정은 실제 담화에서 발화의 독립성과 부담을 낮추는 완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유 전제를 복원하거나 화자의 태도를 확정하는 방향의 조정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본고는 완화와 강화 자체를 ‘-지’와 ‘ㄹ’의 기본 기능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지’는 주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유 전제를 확인하거나 복원하는 기능과 관련되고, ‘ㄹ’은 화자의 확신 유보 및 상호 협상성과 관련되며, 이러한 상위 화용 기능이 구체적인 담화 환경에서 완화 또는 강화 관련 효과로 실현된다고 본다. 본고에서 말하는 ‘주변적 조정 양상’은 출현 빈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화용적 전형성의 기준에서 이해된다. 즉 이는 해당 표현의 전형적인 조정 기능과는 구별되지만, 특정 구문이나 담화 환경에서 비전형적으로 실현되는 조정 효과를 가리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ㄹ’의 완화 양상이 비교적 전형적인 조정 기능이라면, ‘好吧’, ‘是吧’ 구문에서 나타나는 태도 확정 및 담화 종결은 주변적 조정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인식 양태, 정서적 태도 표출, 담화 종결과 관련된 현상은 모두 동일한 분석 층위에 속하는 것으로 전제하기보다,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조정 기능과 맞물리는 범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고의 관심은 이질적인 화용 현상을 하나의 동일한 층위로 환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결 표현이 상호작용 맥락에서 발화의 성격과 청자에 대한 반응 요구 방식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기능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한국어 종결어미 ‘-지’와 중국어 어말 조사 ‘ㄹ’이다. 이 두 표현은 화자의 추측, 확인, 제안, 완곡한 명령

등 다양한 상호작용 맥락에서 나타나며,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미묘하게 조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두 표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각 언어 내부에서의 의미·화용 기능을 서술·분류하는 데에 개별적으로 집중되어 왔다. 한국어학계에서는 '-지'를 '이미 읽'(박재영, 2004), '확인의 상'(정경미, 2017), '담화 초점 이동'(임은정, 2022) 등으로 해석하며 그 다기능성을 규명해 왔다. 중국어학계에서도 '吧'를 '완화'(冉永平, 2004), '협상'(張小峰, 2004), '의지 미정'(趙春利·孫麗, 2015) 등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⁴⁾. 한편 두 언어 간 대조 연구로는 어미와 조사의 목록을 대응시키는 연구(周怡君, 2009; 손설봉·김정남, 2018)⁵⁾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 이르러 '-지'와 '吧'의 화용 기능을 직접 비교한 연구(오옥교, 2019; 문병열, 2022)⁶⁾가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확인 요청, 제안·권유 등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발화수반력 조정 양상을 중심으로 두 표지를 심층적으로 대조하고, 실제 구어 자료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사의 한계는 개별 연구의 구체적 해석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문병열(2022)이 '吧'는 '완

- 4) 박재영,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정경미, 「종결어미 '-지'의 의미 분석」, 『한국어학』 제75집, 한국어학회, 2017.
 임은정, 「정보구조 측면에서 본 종결어미 '-지(요)'의 의미와 담화 기능」, 『언어사실과 관점』 제57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2.
 冉永平, 「言語交際中“吧”의語用功能及其語境順應性特征」, 『現代外語』 제324期, 2004.
 張小峰, 「關聯理論視角下語氣詞“吧”在祈使句中的語用功能探析」, 『南京師大學報』 第34期, 2009.
 趙春利·孫麗, 「句末助詞“吧”的分布驗證與語義提取」, 『中國語文』 第74期, 2015.
- 5) 周怡君, 『漢語語氣詞“啊、嗎、嘛、吧、呢”與韓語終結詞尾對比分析』, 北京語言大學, 碩士論文, 2009.
 손설봉·김정남, 「한·중 문장 종결 유형 대조 분석 연구 - 한국어 종결어미와 중국어 어기사 대조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제59집, 한국어의미학회, 2018.
- 6) 문병열, 「한국어 종결어미 '-지'와 중국어 어기조사 '-吧'의 대조 연구」, 『인문사회21』 제13권 제5호, 인문사회21, 2022.
 오옥교, 「한국어 문장종결형 '-지'와 중국어 어기조사 '吧(ba)'에 대한 의미·화용적 기능 비교 연구」, 『건지인문학』 제24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화'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제시한 점은 실제 언어 사용 양상과의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삼아, 한국어 종결어미 '-지'와 중국어 어말 조사 '吧'가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발화의 직접성, 단정성, 요구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두 표현이 각각의 상위 화용 기능을 바탕으로 발화수반력 조절에 관여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첫째,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베이징언어대학교 2016년판 구어 말뭉치(BCC)⁷⁾에 기반한 실제 구어 자료를 활용하여 각 표현의 상위 화용 기능이 완화 또는 강화 관련 조절 양상으로 실현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대조함으로써 두 표현 간의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吧'의 태도 표명 및 담화 종결과 맞물린 주변적 조절 양상을 구어 자료를 통해 재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 '-지'와 중국어 '吧'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기존 대조 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이론적·연구사적 배경을 정리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지'와 '吧'의 발화수반력 조절 양상을 실제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양자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대조하고,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 한국어 '-지'에 관한 선행 연구

7) BCC 말뭉치는 北京語言大學 언어지능연구원(語言智能研究院)에서 구축한 대규모 중국어 코퍼스로, 현대 중국어의 실제 사용 자료를 수집·정제함으로써 언어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고의 중국어 예문은 2016년판 BCC Balanced Corpus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어 종결 어미 '-지'에 대해서는 방대한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박영준(1994)⁸⁾은 '-지'의 기원을 고찰하여 이 형태의 문법사적 배경을 논의하였다. 차현실(1990)과 한길(1991)⁹⁾등은 해석론적 관점에서 '-지' 어미의 문법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차현실(1990)은 '-지'를 담화 현장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태에 대한 환기 또는 확인 진술의 서법 기능으로 보았으며, 주관적 사고와 추정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한길(1991)은 '-지'의 전체적 의미를 '부드러움'과 '친근감'으로 파악하고, 문형에 따라 약속, 회상, 추정·확인, 제안과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양태의 하위 의미 영역 체계를 설정하여 양태만 서술하는 방식이 '-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추상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박재영(2004, 2006)¹⁰⁾은 표현론적 접근법에서 양태를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나누고,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으로 '정보의 내면화 정도'와 '청자 지식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지'의 양태 의미를 '이미 앎'과 '기지 가정'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분석의 체계성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수정(2014)¹¹⁾은 박재영(2006)의 양태 분류에 동의하면서도, 분류된 범주가 모호하여 '-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임동훈(2008)¹²⁾, 정경미(2017), 임은정(2022) 등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최수정(2014)은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표현론적 관

8) 박영준, 「종결어미 '-지'에 대하여 - 그 기원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1집, 한국어학회, 1994.

9) 차현실, 「반말체의 구성과 반말체 어미의 문법적 기능에 대하여」, 『이화어문논집』 제11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한길,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0) 박재영,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2006.

박재영,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1) 최수정, 「종결어미 '-지'의 인식 양태 의미 연구」, 『한국어와 문학』 제5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12) 임동훈,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제26집, 한국어의미학회, 2008.

점에서 양태 의미 영역을 검토하고, 해석론적 관점에서 ‘-지’의 세부적인 양태 의미를 밝혔다.

박재영(2004)의 하위 양태 분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를 기반으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정경미(2017)는 핵심 의미 입장에서 ‘이미 읽’을 ‘사유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지 가정’을 ‘수용의 당위성 전제’로 보았다. 김정인·김수정(2017)¹³도 같은 입장을 취하여 ‘-지’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근에는 김정인(2018)¹⁴, 정희정(2022)¹⁵처럼 특정 문형에 나타난 ‘-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임은정(2022), 문병열(2022)¹⁶과 같이 정보구조 관점과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지’의 의미와 기능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 연구는 의미론적 서술에서 체계적 분류를 거쳐, 최근에는 담화와 정보 구조 속에서의 실제 기능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장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가 축적한 성과, 특히 화용론 및 정보 구조론적 관점을 토대로 하되, 발화수반력 조정의 관점에서 ‘-지’가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보이는 기능적 양상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대조 분석의 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중국어 ‘吧’에 관한 선행 연구

-
- 13) 김정인·김수정, 「한국어 양태 종결어미 ‘-지’의 의미」, 『국제한국어문화학회 학술대회』, 국제한국어문화학회, 2017.
 14) 김정인, 「의문형 종결어미 ‘-지’의 의미·화용적 기능의 분화」, 『어문연구』 제97집, 어문연구학회, 2018.
 15) 김정인, 정희정, 「종결어미 ‘-지(요)’의 의미와 용법 - 평서문에 쓰인 ‘-지(요)’를 중심으로 -」, 『언어사실과 관점』 제55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2.
 16) 문병열, 「종결어미 ‘-지’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어문학』 제156집, 한국어문화회, 2022.

중국어 어말 조사 '吧'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통사·문법 중심 연구와 화용 기능 중심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초기 연구로는 呂叔湘(1980)¹⁷⁾, 朱德熙(1982)¹⁸⁾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吧'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 문형별로 분류하여 그 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吧'의 문법적 분포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으나, 화자의 태도나 화용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吧'를 화자의 태도와 상호작용 전략을 조정하는 어기 조사로 파악하고, 그 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冉永平(2004)은 '吧'의 핵심 기능을 완화로 보고 발화의 강도를 낮추고 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張小峰(2009)은 명령문에서의 '吧'가 화자의 교제 의도와 화자·청자 간 지위 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았으며, 曾俊浩(2010)¹⁹⁾은 의문문에서 '吧'가 의문, 건의, 재촉, 부탁, 명령, 가설, 기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李禎(2011)²⁰⁾은 '吧'가 화자의 태도를 중립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何文彬(2016)²¹⁾은 주관성 이론에 입각하여 '吧'의 다양한 용법을 추정적 용법과 지시적 용법이라는 두 축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吧'의 상호작용성과 완화적 성격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劉林(2012)²²⁾은 '吧'의 완화 기능에 주목하여, 그것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조정하고 발화의 대인적 충격을 완화하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趙春利·孫麗(2015)는 '吧'가 다양한 문형에 분포하며, 그 본질을 '의향 미정'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汪敏鋒(2018a)²³⁾은 '吧'의 완화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주목하여, '吧'가 부정적 평가나 훈계, 반박, 자기 관련 서술,

17) 呂叔湘, 『現代漢語800詞』, 商務書館出版社, 1980.

18)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82.

19) 曾俊浩, 「淺議漢語句末語氣詞“吧”的情態意義」, 『文學界(理論版)』 第4期, 2010.

20) 李禎, 「語氣詞“吧”的語用分析」, 『語文學刊』 第10期, 2011.

21) 何文彬, 「論語氣詞“吧”的主觀性」, 『語言歷史論叢』 第9期, 2016.

22) 劉林, 「漢語語氣詞“吧”的人際功能」, 『理論界』 第23期, 2012.

23) 汪敏鋒, 「“吧”的緩和功能及其實現」, 『對外漢語研究』, 2018.

지시적 발화에 내재한 대인적 긴장과 충격을 완화한다고 보고, 그 실현 방식으로 담화 리듬의 조절, 결정권의 양도, 가상적 협의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汪敏鋒(2018b)²⁴⁾은 명제 정보가 ‘기정(既定)’ 상태일 때 ‘吧’를 단순한 추측이나 완화 표지로만 볼 수 없다고 보고, 그것이 화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사태가 화자의 예상과 부합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에는 말뭉치 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于淼(2021)²⁵⁾은 ‘嗎’, ‘呢’, ‘吧’를 비교하여 ‘吧’가 확인, 물어보기, 망설임, 위로, 명령, 부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强星娜·劉丹青(2023)²⁶⁾은 자연 구어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吧’ 용법에 주목하여, ‘吧’ 앞의 최소 직접 성분을 C로 설정한 이른바 ‘C吧’ 구조를 메타화용적²⁷⁾ 표현으로 분석하였다.²⁸⁾ 또한 Yang Shuai(2025)²⁹⁾는 수용적 응답 맥락에서 나타나는 어말 조사 ‘吧’를 분석하여, ‘吧’가 화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책임 부담을 낮춤으로써 발화의 책임성과 대인 관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吧’의 개별 기능이나 특정 담화 환경을 정교하게 밝히는 데 기여하였음에도, 실제 구어 담화 전반에서 ‘吧’가 보이는 조정 양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吧’의 기능은 완화, 메타화용적 기능, 상호작용적 책임 조정 등의 측면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완화 이외의 일부 강화 관련 양상까지 포괄하여 검토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24) 汪敏鋒, 「言者依据和預期信息——談“吧”的兩個語用功能及其形式特征」,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18.

25) 于淼, 「語言教學中語氣詞“吧”“呢”“嗎”的功能對比研究」, 『散文百家(新語文活頁)』, 2021.

26) 强星娜, 劉丹青, 「從元語用角度看自然口語中一種特殊的“吧”」, 『漢語學習』, 第5期, 2023.

27) 여기서 ‘메타화용적’이라는 말은 발화 내용 자체보다 표현 방식과 그 상호작용적 의미에 대한 반영 또는 조정과 관련된 성격을 뜻한다.

28) 여기서 C는 强星娜·劉丹青(2023)에서 ‘吧’의 통사적 관할 범위와 관련하여 설정한 기호로, ‘吧’ 앞의 최소 직접 성분을 가리킨다.

29) 楊帥, 「Downgrading commitment: The final particle ba in complying responses to directives in Mandarin Chinese conversation」, 『Discourse Studies』, 第27卷 第3期, 2025.

이러한 점에서 실제 구어 말뭉치에 기반하여 '吧'가 보이는 발화수반력 조정 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베이징언어대학교 구어 말뭉치(BCC)를 활용하여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지'와 '吧'의 대조 연구 현황 및 한계

한국어 종결어미 '-지'와 중국어 어말 조사 '吧'를 직접적으로 대조한 연구는 다른 한·중 대조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각 언어의 종결 표현과 어기 조사를 포괄적으로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형식의 의미와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기능 목록을 제시하거나 대응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周怡君(2009), 손설봉·김정남(2018) 등의 연구는 한국어 종결어미와 중국어 어기 조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대응 관계를 제시하였으나, '-지'와 '吧'라는 특정 형식에 초점을 맞춘 심층적 대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조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개별 표현이 지니는 화용적 기능과 담화적 역할을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오옥교(2019)는 '-지'와 '吧'를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의미·화용적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대조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거시적 대응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개별 형식의 기능에 주목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범위와 분석 틀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의 여지가 남아 있다.

문병열(2022)은 화행 이론을 도입하여 '-지'와 '吧'가 보이는 발화수반력 조정 양상을 완화와 강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선행 연구이다. 특히 대조 연구에 화행 이론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은 본고의 연구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만 문병열(2022)은 '吧'의 기능을 주로 완화로 한정하여 설명함으로써, 완화뿐 아니라 일부 강화 관련 양상에 대

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분석 자료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제 구어 담화에서 나타나는 사용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기존의 ‘-지’와 ‘ㄹ’ 대조 연구는 대응 관계 제시에 머문 거시적 연구에서 출발하여, 점차 의미·화용 기능과 화행 이론을 적용한 연구로 발전해 왔으나, 연구 수가 많지 않고 자료의 다양성과 분석의 체계성 면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실제 구어 말뭉치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발화수반력 조정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발화수반력 조정의 관점에서, 구어 말뭉치 자료와 선행 연구 예문을 활용하여 ‘-지’와 ‘ㄹ’가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보이는 사용 양상을 재검토하고,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3. 한국어 ‘-지’의 발화수반력 조정 기능

1) 완화 양상으로서의 ‘-지’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어 종결어미 ‘-지’는 화자의 인식 상태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추측, 확인, 당연성의 표시, 제안 등 다양한 양태 의미를 구현하는 다기능적 문법 요소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가 강화, 강조, 확인 등 개별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되어 왔으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지’가 상호작용 맥락에서 발화의 직접성, 단정성, 그리고 청자에게 부과되는 인식적 부담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존의 의미 서술을 넘어서, 발화수반력 조정의 관점에서 ‘-지’의 기능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지’의 완화와 강화 관련 양상을 ‘-지’의 기본 기

능 자체로 보지 않는다. '-지'의 상위 화용 기능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유 전제를 확인하거나 복원하는 데 있으며, 이 기능은 담화 환경에 따라 발화의 직접성과 부담을 낮추는 완화 양상 또는 공유 전제를 전면화하거나 복원하는 강화 관련 양상으로 실현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지'가 추측·확인, 제안·권유 등의 맥락에서 보이는 완화 양상과, 공유 전제를 바탕으로 공감과 동의를 유도하는 양상, 그리고 회상과 같이 발화수반력 조정과 맞물린 주변적 용법을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는 한국어 '-지'의 사용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제4장에서 다룬 중국어 '吧'와의 대조 분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먼저, '-지'는 추측과 확인 요청 화행에서 명제의 단정성을 완화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인식 조율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① 추측·확인 요청의 완화

(1) (바람이 몹시 부는 것으로 보아) 바깥 날씨가 춥지.³⁰⁾

(차현실 1990:21)

(1)는 화자가 바람이 몹시 부는 상황을 근거로 바깥 날씨가 춥다고 판단하는 발화로, 직접 경험에 따른 단정이 아니라 관찰에 기반한 추측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때 '춥지'는 단순한 가능성 제시인 '추울 것 같아'와 단정적 진술인 '추워'의 중간에 위치한다. 전자는 화자의 책임 부담이 가장 적어 발화수반력이 약하고, 후자는 명제를 사실로 확정하여 발화수반력이 가장 강하다. 반면 '춥지'는 일정한 근거에 기초한 비교적 높은 확신을 드러내면서

30) 본 예문은 차현실(1990)에서 정문 형식의 예로 제시되었으며, 다른 사태를 근거로 한 주관적 상념 또는 추정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다만 실제 구어에서는 억양에 따라 확인 요청 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추정과 확인 요청 사이의 경계적 사례로 제한하여 다룬다.

도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청자와의 인식 조율 가능성을 남겨 둔다. 차현실(1990)에서 (1)는 발화자가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용도로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발화수반력 조정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화자의 책임 부담과 청자와의 인식 조율 가능성을 함께 드러내는 예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평서문에서의 ‘-지’는 명제의 단정성을 다소 낮추면서도 일정한 판단 근거를 유지한 채 청자와의 인식 조율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발화수반력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A:가. 누구게?

B:나. 철수지. (안 봐도 난 다 알아.) (차현실 1990:22)

(2)는 차현실(1990)에서 화자가 아직 모르는 정보를 추측하거나 확인하는 용도로 제시한 예문이다. (2가)는 ‘누구게?’라는 질문에 대해 ‘철수지.’라고 응답한 예로, 화자가 단순히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이미 명백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발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만약 ‘철수야.’와 같이 단정적인 종결형을 사용할 경우, 발화는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귀결되어 대화적 유희성이나 상호작용성이 약화된다. 반면 ‘철수지.’는 청자 역시 그 답을 알고 있거나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포함하여,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인식 공유를 전면에 드러낸다. 이로써 발화는 정답 제시가 아니라 공지된 지식을 확인·공유하는 행위로 성격이 전환되며, ‘-지’는 명제의 단정성을 낮추고 청자의 동의와 추론을 유도함으로써 발화수반력을 완화하는 조정 표지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3) 가. 요즘 잘 보내고 있지?

나. 요즘 잘 보내고 있어?

(3가)의 ‘-지?’ 형식은 화자가 해당 명제가 이미 성립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확인 요청인 반면, (3나)의 '-어?' 형식은 청자의 근황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묻는 중립적인 질문이다. 전자의 경우 발화는 정보 획득 자체보다는 화자의 인식을 청자와 공유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려는 데 초점이 놓이는 반면, 후자의 경우 발화는 청자가 보유한 정보를 새롭게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지'는 질문의 정보 요구성을 약화시키고, 청자의 동의와 공감을 전제로 한 확인 행위로 전환시킴으로써 발화의 직접성과 대립성을 낮춘다. 따라서 의문문에서 '-지'는 단순한 정보 요청형 질문을 공감적 확인 요청으로 조정하여 발화수반력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는 추측이나 확인과 같은 인식 차원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제안·권유 화행에서도 화자의 의지를 완화하여 상호주관적 당위성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보인다.

② 제안·권유의 완화

(4) 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싫으면 그만하지.

나. 나도 좀 극장에 데리고 가지.

(정경미 2017 : 296 재인용)

다. (버스 안에서 혼잣말로) 차도 밀리는데 좀 내려 주시지.

(정경미 2017 : 286)

예문(4)는 '-지'가 제안 화행에서 발화수반력을 완화하는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드러낸다. (4가)에서 '-지'는 '그만둬'를 개인적인 충고나 지시가 아니라, '싫으면 그만둔다'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로 제시한다. (4나)에서는 화자의 바람이 직접적인 요구의 형태로 제시되기보다는, 청자가 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완화된 요청으로 실현된다. (4다)에서는 '차가 밀린다'는 공유된 객관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요구적 함의가 형성되며, 발화는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상

황에 근거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즉, '-지'는 화자의 의지를 직접적인 요구로 제시하기보다 청자와의 인식 공유나 상황적 타당성에 기대어 제시함으로써 발화의 대립성과 부담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³¹⁾

(5) 가. 야채가 싫어도 좀 먹어야지. (부드럽게 권유)

나. 우리 지금 집에 가지. (부드럽게 청유)

(5가)에서 '-아야지'는 당위성을 전제로 한 권유 화행을 구성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결합된 '-지'는 해당 당위성을 화자의 일방적 주장으로부터 청자의 안녕에 대한 배려라는 공유된 관심에 기반한 것으로 전환시켜, 강요의 인상을 완화하고 친절한 조언의 성격을 부여한다. (5나)에서는 '-지'가 청유적 발화 형식으로 사용되어, 단순한 공동 행동 제안을 친밀하고 일상적인 공동 결정으로 재구성한다. 이는 청자가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압박감을 줄이고, 발화를 관계적 유대감을 전제하는 화행으로 전환시킨다. 즉, '-지'는 권유와 청유 화행에 내재한 잠재적 부담을 관계적 친밀감과 공유된 인식에 근거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발화수반력 완화와 관련된 효과를 보인다. 이는 추측·확인 요청에서 나타나는 완화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며, 사회적 당위성과 관계적 배려가 전경화된 실현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지'는 단순한 완화에 그치지 않고, 발화를 공유된 인식과 당연성의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간의 공감과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③ 공유 전제에 기반한 공감·동의 유도

31) (4나)와 (4다)의 예문은 정경미(2017)에서 제시된 것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4나)에서는 화자의 바람과 청자의 이해를 전제로 한 요청형 표현, (4다)에서는 공유된 객관적 상황을 전제로 한 요청형 표현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예문들을 발화수반력 조정의 틀에서 재분석했다.

(6) A:철수는 어디 갔어?

B1: 병원에 갔지.

B2: 병원에 갔어.

(박재영 2004:148)

예문(6)에서 '철수는 어디 갔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사용된 B1의 '-지'는 해당 정보가 이미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고 있음을 전제로 함으로써, 단순한 정보 전달(B2)을 공동 인식의 확인 행위로 전환시킨다. 이로써 발화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상호 간의 공감과 합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며, 담화 상황의 대립 가능성과 상호작용적 부담을 낮춘다. 즉, '-지'는 청자를 단순한 정보 수신자가 아니라 인식을 함께 확인하는 담화 참여자로 위치시킴으로써, 공감과 동의의 형성을 통해 발화의 직접성과 상호작용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

(7) 가. 한글을 만든 분은 세종대왕이지.

나.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면 안 되지.

다. 어른이 말씀하실 때 말대답하면 버릇없어 보이지.

(정경미 2017 : 277)

정경미(2017)는 예문(7)을 통해 '-지'가 화자의 판단이 아닌 공유된 인식을 전제로 발화를 전환하는 기능을 논의하였다. 이를 본고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예문(7)에서 '-지'는 명제 내용을 화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미 공유된 인식으로 전제함으로써, 발화를 단순 정보 제시나 훈계가 아닌 공동 인식 확인 및 강화 행위로 전환시킨다. (7가)의 역사적 사실과 (7나), (7다)의 사회적 규범은 모두 청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수용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제시된다. 이에 따라 발화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에 대한 인식을 함께 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며, 담화 참여자 간의 공감과 합의를 안정적으로 형성한다. 즉,

‘-지’는 명제를 공유된 인식과 당연성의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화자와 청자의 인식 정렬을 강화하고, 그 결과 무대립적 담화 환경에서 공감과 동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발화수반력 완화와 직접 동일한 층위라기보다, 공유 전제에 기반한 상호작용적 효과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④ 회상 용법: 공감 형성과 책임 공유

앞서 살펴본 용법들이 주로 인식과 지식 차원의 합의 형성과 관련된다면, 여기서는 체험과 정서 차원에서 나타나는 공감 형성과 책임 공유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8) 가. 이맘때 그곳 날씨는 무척 추웠지. (차현실 1990 : 21)

차현실(1990)은 예문(8)의 ‘-지’를 발화 당시 이미 확인된 상태를 회상하며 다시 확인하는 진술로 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발화수반력 조정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예문(8)에서 ‘-지’는 과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자의 개인적 체험을 청자가 공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회상의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발화의 직접성과 인식적 부담을 조절하는 효과를 보인다. ‘추웠어’가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 보고에 머무는 표현이라면, ‘추웠지’는 그때의 감각과 정서를 함께 불러내어 청자의 정서적 공명을 전제로 한다. 이로써 발화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경험의 환기와 공감적 재구성을 지향하게 되며, 회상 맥락에서 개인적 기억을 상호주관적 체험의 장으로 확장시킨다. 이때 ‘-지’는 체험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 책임을 화자 개인에게만 귀속시키지 않고, 청자의 공감적 수용 가능성에 기대는 방식으로 이를 분산시킴으로써 발화수반력을 완화한다.

이처럼 회상 화행에서의 ‘-지’는 개인적 체험을 청자와 공유 가능한 정서적 경험으로 확장하여, 발화에 내재한 책임과 부담을 상호주관적으로 분산시킨

다. 이는 인식·지식 차원의 완화와 직접 동일한 층위의 기능이라고 보기보다는, 공감 형성과 책임 공유를 통해 발화의 대립성과 직접성을 낮추는 주변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강화 관련 양상으로서의 '-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는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 인식과 수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발화의 직접성과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지만, 그러한 공유 기반이 부정되거나 약화된 상황에서는 화자의 판단을 전면화하고 상대 발화를 교정·강조하는 방향으로 강화 관련 양상을 나타낸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지'의 강화 양상이 어떠한 담화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 (9) 가. ('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친구에게)아니지, 중요하지.
(최수정 2014 : 281)

앞서 논의한 공감·동의 유도 양상이 공유된 인식을 전제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합의 형성과 관련된다면, 여기서 살펴볼 '-지'의 강화 양상은 그러한 전제가 부정되거나 약화된 상황에서 이를 전면에 드러내어 화자의 입장을 확정하고 상대의 발화를 교정·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최수정(2014) 역시 이처럼 공유 전제가 부정되거나 흔들리는 맥락에서 나타나는 예문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이미 얇'이나 '기지가정'의 양태 의미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예문(9)에서 '-지'가 화자의 반박과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여기서 '아니지'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판단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이미 공유되어 있어야 할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정되었음을 문제 삼는 반박이다. 또한 '중요하지'는 '중요해'에 비해, 해당 명제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합의되어야 할 전제임을 다시 전

면에 부각시킨다. 이로써 발화는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공유 전제가 훼손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복원하려는 교정 행위로 성격이 전환되며, ‘-지’는 화자의 판단을 정당화하고 공유 전제의 복원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강화 효과를 보인다.

(10) 가. A:한국어 어렵다.

나. B1:어렵지.

B2:어려워.

예문(10)에서 B1의 ‘어렵지’는 A의 발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는 어렵다’는 판단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이미 합의되어 있어야 할 인식임을 전제로 삼아 이를 다시 부각시킨다. ‘어려워’가 평가 내용을 중립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라면, ‘어렵지’는 해당 판단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 전제로 유지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발화이다. 이로써 발화는 개인적인 동의 표명을 넘어, 약화되었거나 흔들릴 수 있는 공통 인식을 고정·강화하는 행위로 성격이 전환되며, ‘-지’는 공유 전제를 전면화함으로써 화자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청자에게 인식적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강화 효과를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어 ‘-지’가 보이는 발화수반력 조정 양상을 완화와 일부 강화 관련 양상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지’의 기능을 강화, 강조, 확인 등 개별 기능의 차원에서 기술하였다면, 본고는 이를 발화수반력 조정의 관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지’가 공유 전제의 유지·복원 여부에 따라 발화의 직접성, 부담, 인식적 압박을 조절하는 양상을 보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중국어 어말 조사 ‘吧’가 보이는 발화수반력 조정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4. 중국어 ‘吧’의 발화수반력 조정 기능

제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어 어말 조사 ‘吧’에 관한 기존 연구는 완화 기능을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주관성, 메타화용, 상호작용적 책임 조정 등 다양한 측면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수반력 조정의 관점에서 완화 양상뿐 아니라 태도 확정·담화 종결과 관련된 주변적 조정 양상까지 함께 검토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 장에서는 발화수반력 조정의 관점에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베이징언어대학교 BCC 구어 말뭉치 자료를 활용해 ‘吧’가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보이는 사용 양상을 재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吧’의 완화 양상과 태도 확정·담화 종결 관련 양상을 ‘吧’의 기본 기능 자체로 보지 않는다. ‘吧’의 상위 화용 기능은 화자의 확신 유보와 상호 협상성을 표시하는 데 있으며, 이 기능은 담화 환경에 따라 발화의 직접성과 강제성을 낮추는 완화 양상 또는 특정 구문 환경에서 화자의 태도를 확정하고 담화 국면을 마무리하는 주변적 조정 양상으로 실현된다. 구체적으로는 ‘완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好吧/是吧’ 등 특정 구문 맥락에서 나타나는 태도 확정 및 담화 종결 관련 양상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吧’가 다양한 상호작용 맥락에서 보이는 조정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완화 양상으로서의 ‘吧’

먼저 ‘吧’는 추측이나 확인 요청 화행에서 화자의 확신을 유보함으로써 발화의 단정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① 추측과 확인 요청의 완화

(11) 가. 她到家12点多了。

(개 12시 넘어서 집에 도착했어.)

나. 她到家12点多了吧。

(개 12시 넘어서 집에 도착했겠지.) (BCC말뭉치 2016)

예문(11가)는 명제를 단정적으로 진술하여 높은 발화수반력을 지니는 반면, (11나)는 동일한 명제에 어말 조사 ‘吧’를 첨가함으로써 화자의 확신을 낮추고 발화행위를 개방적 추측으로 전환시킨다. 이는 ‘吧’가 화자-청자 간 인지적 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발화수반력을 완화하는 기능을 지님을 보여준다.

(12) 가. 现在是下午6点, 你下班了吗?

(지금 오후 6시인데 퇴근했어?)

나. 现在是下午6点, 你下班了吧?

(지금 오후 6시인데, 퇴근했지?) (BCC 말뭉치 2016)

예문(12)에서 ‘吗’는 화자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중립적 질문(정보 요구)을 나타내며, 이는 ‘吗’를 생략한 구어형(∅)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반면 ‘吧’는 화자가 이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판단을 전제로 함으로써, 질문을 확인 요청이라는 완화된 화행으로 전환시킨다. 이를 통해 ‘吧’는 발화행위의 인지적 기반과 화행적 힘의 강도를 조정하여 발화수반력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다만, ‘吧’의 이러한 확인 요청 기능은 대화 상대자인 청자를 향한 때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의 내적 사고 과정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나타난다. 즉, 그 작용 방향에 따라 실현 양상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인다. 화자가 자신의 추측을 되새기거나 기억을 환기하는 자문 형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청자의 응답이 전제되지 않는다(于淼, 2021 참조). 于淼(2021)에서 제시된 ‘今天应该

不会下雨了吧?’(오늘은 비가 안 오겠지?)나 ‘这是我的吧?’(이거 내 거지?)와 같은 예는, 화자가 외부에 확인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사고 과정에서 확신을 조정하는 내면적 발화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吧’의 조정 양상이 대상만 내부로 전환된 실현 차이에 해당할 뿐, 화자의 확신 유보를 통해 발화의 단정성을 조절한다는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吧’는 제안이나 부탁과 같은 지향적 화행에서 발화의 지시성과 강제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제안·부탁의 완화

(13) 가. 我们吃这个。

(이거 먹어.)

나. 我们吃这个吧。

(이거 먹자.)

(BCC말뭉치 2016)

예문(13가)는 화자가 식사 대상을 이미 결정한 사실을 알리거나 선언하는 발화로, 비교적 강한 발화수반력을 지닌다. 반면 (13나)는 동일한 명제에 ‘吧’를 결합함으로써 발화를 제안형으로 전환하여, 청자의 동의나 참여를 전제로 한 협의적 발화가 된다. 즉, ‘吧’는 단정적 선언 화행을 제안 화행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발화의 지시성과 단정성을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발화수반력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4) 가. 快点。

(빨리 가.)

나. 快点吧。

(빨리 가지.)

(BCC말뭉치 2016)

예문(14)는 ‘吧’가 지시적 발화의 화행적 힘을 조정하는 기능을 잘 보여준다. (14가)는 단호한 명령이나 재촉으로 기능하며, 청자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강한 발화수반력을 나타낸다. 반면 (14나)는 ‘吧’의 첨가로 발화가 부탁이나 완곡한 재촉으로 전환되어, 명령의 직접성과 강제성이 약화된다. 특히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사용할 경우, ‘吧’는 사회적 지위 차이를 고려하여 청자의 체면을 보호하고 발화를 완화하는 조정 장치로 작용한다(張小峰, 2009; 冉永平, 2012). 이는 ‘吧’가 발화의 화용적 적절성과 대인관계 조정을 실현하는 발화수반력 조정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吧’는 추측·확인이나 제안·부탁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평가나 칭찬 응답 맥락에서 화자의 태도를 낮추고 겸양을 드러내는 양상으로도 나타난다.

③ 수용·겸양의 표현

(15) (‘你中文真好(중국어를 잘하네)’에 대한 응답으로)

가: 还行。(그냥 보통이야.)

나: 还行吧。(아직 멀었죠.)

(BCC말뭉치 2016)

예문(15)는 칭찬 응답 맥락에서 ‘吧’가 발화수반력을 조정하여 겸양을 실현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15가)는 비교적 확정적인 자기 평가를 담은 발화인 반면, (15나)에서 첨가된 ‘吧’는 화자의 진술에 확신의 유보를 표시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청자의 칭찬에 대해 자신의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완화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의미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관계 조정적 발화행위로의 전환이다. 결국 ‘吧’는 자기 긍정이 지니는 발화력을 약화시키고, 협조적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추측·확인 요청이나 제안·부탁에서의 완화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며, 칭찬 응답 맥락에서 겸양과 관계 조정을 드러내는 실현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吧'는 일부 의문문 맥락에서 발화의 초점을 확인 요청이나 결정권 위임의 방향으로 조정함으로써, 담화에서의 책임 분담과 역할 배치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④ 확인 요청과 결정권 위임

(16) 가. 我们明天不上课吧?

(우리 내일 수업 없는 거지?)

나. 你说这两个我选哪个吧?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할지 네가 정해 줄래?)

(BCC말뭉치2016)

예문(16)에서는 '吧'가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확인 요청이나 결정권 위임의 방향으로 해석되는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16가)에서 화자는 '我们明天不上课吧?(내일 수업이 없지?)'라는 내용을 이미 공유된 전제로 두고, '吧'를 통해 이를 새로 묻기보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는 청자의 인지 상태를 배려하면서 확인 요청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용법이다. 다음으로 (16나)에서는 '吧'의 첨가로 표면적인 선택 질문이 결정권을 청자에게 위임하는 요청으로 이해된다. 화자는 자신의 선택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 판단의 책임과 권한을 청자에게 이전한다. 이처럼 '吧'는 동일한 의문문 형식 안에서도 확인 요청과 결정권 위임이라는 서로 다른 상호작용적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담화에서의 역할 분담과 책임 배치에도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이 '吧'는 추측·확인, 제안·부탁, 겸양, 결정권 위임 등 다양한 상호작용 맥락에서 화자의 확신을 유보하고 발화의 부담과 책임을 유동화함으로써 발화의 직접성과 강제성을 낮추는 완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특정 구문

환경에서는 ‘吧’가 이러한 완화 양상과는 달리, 화자의 태도 표명이나 담화의 종결과 관련된 방향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형적인 강화 기능이라기보다 발화 수반력 조정과 관련된 주변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好吧’/‘是吧’ 구문에 나타나는 태도 확정과 담화 종결 관련 양상

앞절에서 살펴본 ‘吧’의 완화 양상과는 구별되게, 본 절에서는 ‘好吧’와 ‘是吧’ 구문에서 나타나는 태도 확정 및 담화 종결 관련 양상을 살펴본다.

(17) 가. 是你煮的东西难吃。

(네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

나. 是你煮的东西难吃, 好吧。

(네가 만든 음식이 맛있는 거잖아.)

(BCC말뭉치 2016)

(17가)가 불만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친다면, (17나)에서는 ‘好吧’의 첨가로 발화가 단호한 재확인 의 성격을 띠며 담화가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이해된다. 이는 ‘吧’가 ‘好吧’와 같은 고정 구문 안에서 화자의 감정적 평가를 응집시키고, 발화에 확정성과 종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용법은 ‘吧’를 완화 기능으로만 한정된 기존 논의(문병열, 2022 참조)를 보완하며, ‘吧’가 화용적 맥락과 구문 구조에 따라 태도 확정 및 담화 종결과 관련된 방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³²⁾

32) ‘好吧’는 일상 담화에서 수용·체념·불만·양보 등 다양한 정서적 태도를 표출하는 표현으로 빈번히 쓰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다채로운 정서적 의미 자체보다, ‘好吧’가 특정 구문 맥락에서 화자의 태도 확정과 담화 국면의 마무리와 맞물려 나타나는 조정 양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18) 가. 你确定要这样是吧, 行, 随便你。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지? 알겠어, 네 마음대로 해.)

예문(18) '你确定要这样是吧, 行, 随便你(너 정말 그렇게 할 거지? 알겠어, 네 마음대로 해.)'에서 '是吧'는 단순한 의문이나 확신의 완화라기보다, 화자가 청자의 태도를 되짚어 확인하면서 담화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是吧'를 삭제한 '你确定要这样, 行, 随便你'와 비교할 때, 발화에 재확인 의 성격과 더불어 체념 또는 낙담의 정서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是吧'는 발화의 확정성과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며, 담화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담화 종결 기능은 '吧'의 상위 화용 기능인 확신 유보 및 상호 협상성이 특정 구문 환경('好吧', '是吧')에서 더 이상 협상을 열어 두기보다 협상 가능성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好吧'와 '是吧'는 화자가 더 이상의 논의나 협상을 열어 두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일정하게 확정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로 인해 발화는 상호 협의의 여지가 축소되고, 담화 국면이 마무리되는 효과를 보인다. 이는 '吧'의 전형적인 완화 기능과는 구별되는 주변적 조정 양상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吧'가 보이는 발화수반력 조정 양상을 완화 양상과 태도 확정·담화 종결 관련 주변적 조정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吧'는 화자의 확신을 유보하고 책임을 유동화하는 방향에서 주로 완화 양상을 보이는 한편, 특정 구문 환경에서는 화자의 태도를 확정하고 담화 국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5. ‘-지’와 ‘吧’의 기능 대조기능

1) 발화수반력 완화 양상의 대조

앞서 3장과 4장에서 각각 분석한 바와 같이, ‘-지’와 ‘吧’는 화자의 추측, 확인, 제안 맥락에서 발화의 확신도와 지시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통된 완화 양상을 보인다. 즉 두 표현은 단정적 진술이나 강한 요구를 완곡한 추측, 확인 요청, 협의적 제안으로 조정함으로써 담화의 대립성과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된 완화 양상에도 불구하고, 두 표현이 이를 실현하는 방식과 전경화하는 상호작용적 요소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지’의 완화는 주로 화자와 청자 간 공유된 지식이나 당위성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바깥 날씨가 춥지’(3장 (1가))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추측을 화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청자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공유된 전제로 제시하는 경우이다. ‘싫으면 그만 하지’(3장 (4가))에서는 개인적 의지를 직접 드러내기 보다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조언이나 합리적 선택으로 발화를 재구성한다. 이처럼 ‘-지’는 화자의 발화를 상호주관적 합의의 영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명제를 화자 개인의 책임에서 분리해 공동의 인식 틀 안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발화수반력을 완화한다. 이는 ‘-지’의 완화가 우선 공유된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그 결과로 공감과 관계 조정의 효과를 수반하는 방향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중국어 ‘吧’는 비슷한 완화 효과를 추구하지만, 그 실현 방식에 있어 공유 전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화자의 확신 유보와 청자의 선택 가능성 확보에 더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吧’의 완화는 화자 개인의 인식적 유보 또는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적 협상에 그 뿌리를 둔다. ‘她到家12点多了吧’(4장 (11나))는 화자가 자신의 정보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판단의 확정성을 일부러 보류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我們吃這個吧’(4장 (13나))는 단정적인 결정이나 지시를 청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의적 제안으로 재구성한다. 이처럼 ‘吧’는 발화의 책임과 결정권

을 의도적으로 유동화하고, 청자에게 판단의 공간을 열어둠으로써 대인관계의 긴장과 부담을 완화한다. 이러한 양상은 '吧'의 완화가 화자의 주관적 태도 표출과 상호작용적 협상 가능성 조정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지'와 '吧'는 모두 발화수반력 완화와 관련된 공통 양상을 보이지만, 그 실현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지'의 경우 공유된 인식과 공감적 함의를 바탕으로 발화의 부담을 낮추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吧'는 화자의 인식 유보와 상황적 협상을 통해 청자에게 판단과 응답의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발화수반력 완화가 단순한 완곡화에 그치지 않고, 공유 전제를 전면에 두는 방식과 화자의 확신 유보 및 청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식 등 서로 다른 상호작용적 조건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지'의 완화는 공유된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공감 형성과 관계 조정의 효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吧'의 완화는 화자의 유보적 태도와 청자의 판단·선택 여지를 확보하는 방향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향을 보인다.

2) 강화 관련 및 주변적 조정 양상의 대조

살펴본 완화 양상과는 별개로, '-지'와 '吧'는 특정 화용적 맥락에서 발화의 확정성이나 압박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두 표현이 완화에만 한정되지 않고,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조정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두 표현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계기와 작동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지'의 강화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공유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식이 훼손되거나 약화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그건 중요하지 않아'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나타나는 '아니지, 중요하지'(3장 (9가))는 상대의 판단이 공유 전제를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해당 명제가 당연히 함의되어야 할 인식임을 재확인하는 교정적 화행이다. 이때 '-지'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인식적 일

치를 전제로 하여, 그 전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담화 내에서 인식적 압박을 형성한다.

이에 비해 ‘吧’는 주로 ‘好吧’나 ‘是吧’와 같은 고정 구문 내에서, 그리고 담화 종결이 요구되는 맥락에서 태도 확정 및 담화 종결과 관련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是你煮的東西難吃, 好吧’(4장 (17나))는 단호한 재확인 의 성격을 띠며 담화가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고, ‘你確定要這樣是吧’(4장 (18))는 체념이나 실망감의 정서를 동반한 재확인 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경우 ‘吧’는 더 이상의 협상 가능성을 줄이면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정서적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요약하면, ‘-지’의 경우에는 공유 인식의 복원을 통해 청자에게 인식적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吧’는 특정 구문을 매개로 화자의 태도 표명과 담화 종결과 관련된 방향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지’는 공유 전제가 훼손된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려는 교정적 성격이 강한 반면, ‘吧’는 화자 개인의 정서적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담화를 마무리하는 방향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다.

3) 문형별 발화수반력 구현 양상의 대조

‘-지’와 ‘吧’는 평서문, 의문문, 기사문 등 문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정 양상을 보이며, 동일한 문형 환경 안에서도 화용적 초점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두 표현이 문형별 맥락에서 서로 다른 상호작용적 초점과 실현 방식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평서문에서 ‘-지’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지식을 전제로 한 판단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예컨대 ‘철수는 병원에 갔지’(3장 (6)의 B1)는 해당 정보가 청자 역시 알고 있거나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임을 전제한다. 반면 ‘吧’는 화자 개인의 추측이나 인식적 유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다. ‘她到家12点多了吧’(4장 (11나))는 화자의 정보가 불완전함을 전제하고 판단의 확

정성을 보류하는 발화이다. 즉 평서문에서 '-지'는 공유된 인식을 전제로 한 판단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한 반면, '吧'는 화자 개인의 추측과 확신 유보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의문문에서 '-지?'는 화자가 이미 일정한 답을 예상하거나 청자와의 공감대를 전제로 한 확인 요청으로 기능한다. '요즘 잘 보내고 있지?'(3장 (3가))는 정보 획득보다 관계적 관심과 공감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에 비해 '吧?'는 명제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적 확인을 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現在是下午6点, 你下班了吧?'(4장 (12나))는 시간적 근거에 기반한 추측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발화이다. 따라서 의문문에서 '-지?'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감과 확인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吧?'는 화자의 추측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기사문(청유·명령문)에서 '-지'는 제안이나 권유를 사회적 당위성이나 공유된 논리에 근거시킨다. '야채가 싫어도 좀 먹어야지'(3장 (5가))는 건강에 대한 공통 인식을 전제로 하여 발화를 정당화한다. 반면 '吧'는 기사적 발화에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표지로 작용한다. '我們吃這個吧'(4장 (13나))는 청자의 선택과 동의를 전제로 한 협의적 제안이다. 즉 청유·명령 맥락에서 '-지'는 당위성이나 공유된 논리를 바탕으로 권유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吧'는 청자의 동의와 선택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향으로 제안을 구성한다.

요약하면, '-지'는 여러 문형에서 공유 인식, 당위성, 공감과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조정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吧'는 화자 개인의 인식 상태와 상호작용적 맥락에 따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지'가 공유 전제를 바탕으로 공감과 공유 인식의 효과를 형성하는 방향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吧'는 화자의 유보적 태도와 상황적 협상 가능성을 조정하는 방향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종결어미 ‘-지’와 중국어 어기조사 ‘吧’를 대상으로, 두 표현이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발화의 직접성, 단정성, 요구성 조절과 관련하여 일정한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그 실현 방식과 화용적 초점에서는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구어 말뭉치 자료와 선행 연구의 예문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완화 양상과 태도 확정·담화 종결 관련 양상, 그리고 문형별 구현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는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된 인식과 당위성을 전제로 하여 발화의 부담과 직접성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였다. 완화 양상과 일부 강화 관련 양상 모두에서 공유 전제를 확인하거나 복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吧’는 화자 개인의 인식적 유보, 관계 협상, 태도 표명 및 담화 종결과 관련된 맥락에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즉, ‘吧’는 화자의 확신 유보와 상호작용적 협상 가능성 조정, 그리고 특정 구문에서의 태도 확정과 담화 마무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고의 분석 결과, ‘-지’는 공유 전제의 확인·복원과 공감 형성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吧’는 화자의 유보적 태도와 상황적 협상 가능성 조정, 그리고 일부 구문에서의 담화 종결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와 ‘吧’가 단순한 완곡 표지에 머무르지 않고, 주요 상호작용 맥락에서 발화의 직접성, 단정성, 요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정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완화 중심 논의를 보완하면서, 두 표현의 기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둘째, ‘-지’와 ‘吧’의 완화 및 관련 양상이 동일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 전제를 전면에 두는 방식, 화자의 확신 유보와 청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식, 그리고 특정 구문에서 태도 확정과 담화 종결이 나타나는 방식 등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지'를 사용할 때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유 전제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자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단순히 묻고자 하는 상황에서 '오늘 날씨 답지?'라고 말하는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는 청자가 이미 날씨가 답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부각되어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 이는 '-지'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공유 전제의 확인 및 복원'이라는 본고에서 밝힌 상위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에 기반한 질적 분석에 주로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균형 말뭉치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용 빈도와 분포 양상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변인과 담화 장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1. 서적류

-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 『표준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1993.
박재영,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2006.
한길,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呂叔湘, 『现代汉语800词』, 商务印书馆出版社, 1980.
朱德熙,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1982.

2. 논문류

- 김정인, 「의문형 종결어미 ‘-지’의 의미·화용적 기능의 분화」, 『어문연구』 제97집, 어문연구학회, 2018.
김정인·김수정, 「한국어 양태 종결어미 ‘-지’의 의미」, 『국제한국어문화학회 학술대회』, 국제한국어문화학회, 2017.
문병열, 「한국어 종결어미 ‘-지’와 중국어 어기조사 ‘-吧’의 대조 연구」, 『인문사회21』 제13권 제5호, 인문사회21, 2022.
—, 「종결어미 ‘-지’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어문학』 제156집, 한국어문학회, 2022.
박재영,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박영준, 「종결어미 ‘-지’에 대하여 — 그 기원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1집, 한국어학회, 1994.
손설봉·김정남, 「한·중 문장 종결 유형 대조 분석 연구 — 한국어 종결어미와 중국어 어기사 대조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제59집, 한국어의미학회, 2018.
오옥교, 「한국어 문장종결형 ‘-지’와 중국어 어기조사 ‘吧(ba)’에 대한 의미·화용적 기능 비교 연구」, 『건지인문학』 제24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2019.
- 임동훈,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제26집, 한국어의미학회, 2008.
- 임은정, 「정보구조 측면에서 본 종결어미 '-지(요)'의 의미와 담화 기능」, 『언어 사실과 관점』 제57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2.
- 정경미, 「종결어미 '-지'의 의미 분석」, 『한국어학』 제75집, 한국어학회, 2017.
- 정희정, 「종결어미 '-지(요)'의 의미와 용법 - 평서문에 쓰인 '-지(요)'를 중심으로 -」, 『언어사실과 관점』 제55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2.
- 차현실, 「반말체의 구성과 반말체 어미의 문법적 기능에 대하여」, 『이화어문논집』 제11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0.
- 최수정, 「종결어미 '-지'의 인식 양태 의미 연구」, 『한국어와 문학』 제5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 Portner, Paul·Pak, Miok·Zanuttini, Raffaella, 「Dimensions of honorific meaning in Korean speech style particles」,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제7권 제1호, 2022.
- Margolis, Joseph, 「Meaning, Speakers' Intentions, and Speech Acts」, 『The Review of Metaphysics』 제26권 제4호, 1973.
- 何文彬, 「论语语气词“吧”的主观性」, 『语言历史论丛』 第9期, 2016.
- 冉永平, 「言语交际中“吧”的语用功能及其语境顺应性特征」, 『现代外语』 第324期, 2004.
- 刘林, 「汉语语气词“吧”的人际功能」, 『理论界』 第23期, 2012.
- 李祯, 「语气词“吧”的语用分析」, 『语文学刊』 第10期, 2011.
- 汪敏锋, 「“吧”的缓和功能及其实现」, 『对外汉语研究』, 2018.
- , 「言者依据和预期信息——谈“吧”的两个语用功能及其形式特征」, 『世界汉语教学』 第2期, 2018.
- 杨帅, 「Downgrading commitment: The final particle ba in complying responses to directives in Mandarin Chinese conversation」, 『Discourse Studies』, 第27卷 第3期, 2025.
- 于淼, 「语言教学中语气词“吧”“呢”“吗”的功能对比研究」, 『散文百家(新语文活页)』,

2021.

张小峰,「关联理论视角下语气词“吧”在祈使句中的语用功能探析」,『南京师大学报(社会科学版)』第34期,2009.

赵春利·孙丽,「句末助词“吧”的分布验证与语义提取」,『中国语文』第74期,2015.

曾俊洁,「浅议汉语句末语气词“吧”的情态意义」,『文学界(理论版)』第4期,2010.

强星娜,刘丹青,「从元语用角度看自然口语中一种特殊的“吧”」,『汉语学习』第5期,2023.

周怡君,『汉语语气词“啊、吗、嘛、吧、呢”与韩语终结词尾对比分析』,北京语言大学,硕士学位论文,2009.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n the Illocutionary Force Adjustment Functions of the Korean Sentence-Final Ending -ji and the Chinese Sentence-Final Particle ba

Gao Ying · Su Xia

This study moves beyond previous discussions that have treated the Korean sentence-final ending -ji and the Chinese sentence-final particle ba merely as modal markers or mitigation devices, and examines how the two expressions may perform pragmatic functions related to illocutionary force adjustment in discourse. Previous studies have tended either to describe -ji and ba separately within each language or to discuss them mainly in terms of functional correspondence. In particular, ba has often been understood primarily as a marker of mitiga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draws on discussions in speech act theory as its theoretical background and, from the perspective of illocutionary force adjustment, investigates how -ji and ba regulate the directness, assertiveness, and demand of utterances in major interactional contexts, especially in confirmation requests and suggestions or exhortations. Based on data from the BCC spoken corpus together with examples from previous studies, the study further explores what kinds of adjustment patterns the two expressions exhibit in major interactional contexts and how their modes of realization differ.

Based on BCC spoken corpus data and examples from previous studies, this study qualitatively analyzes the illocutionary force adjustment patterns of -ji and ba in major interactional contexts, focusing on mitigation while also including some strengthening-related adjustment patterns. The results show that both expressions share the tendency to weaken the assertiveness and directive force of utterances in speech acts such as conjecture, confirmation, suggestion, and exhortation, but they differ in the way this adjustment is realized and in its interactional effects. More specifically, -ji tends to move the utterance toward the domain of epistemic

agreement on the basis of shared knowledge or normative expectations between speaker and hearer, and this mitigating effect is realized through shared presuppositions. In contrast, *ba* tends to make the responsibility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utterance more fluid through the speaker's suspension of certainty and relational negotiation, and this mitigating effect is realized through the negotiation of responsibility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In the case of *-ji*, patterns are also observed in which the naturalness of the utterance and the hearer's likelihood of agreement are strengthened through the reaffirmation and highlighting of shared understanding. By contrast, in some uses of *ba*, especially in constructions such as *hao ba* and *shi ba*, patterns related to stance expression or discourse closure become salient; these are better understood not as prototypical illocutionary force strengthening but as peripheral adjustment patterns related to illocutionary force adjustment. These contrasting patterns are observed relatively consistently across major sentence types and interactional contexts.

On the basis of these analytical and contrastive findings, this study confirms that *-ji* and *ba* are not merely hedging devices, but can exert adjustment effects on the directness, assertiveness, and demand of utterances in major interactional contexts. In this respect, the study is theoret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supplements existing mitigation-centered discussions and suggests the possibility of reinterpreting the functional patterns of *-ji* and *ba* from the perspective of illocutionary force adjustment. More specifically, Korean *-ji* tends to regulate the directness of utterances on the basis of shared understanding or normative expectations between speaker and hearer, whereas Chinese *ba* tends to b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speaker's suspension of certainty,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the adjustment of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 with the interlocut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pragmatic teaching of Korean and Chinese, the two expressions should be presented not merely as semantically corresponding forms, but as expressions that regulate the nature of utterances and response relations within interactional contexts.

Key words : Speech Act Theory, Illocutionary Force Adjustment, Korean Sentence-Final Ending *-ji*, Chinese Sentence-Final Particle *ba*, Pragmatic Mitigation and

Reinforcement-Related Patterns, Korean-Chinese Contrastive Analysis

투 고 일 : 2026. 4. 10. / 심 사 일 : 2026. 4. 15.~ 2026. 5. 15. / 게재확정일 : 2026. 5. 20.

